

# 이렇게 들었다

## 가정 “서로 뜻모아 말과 안색 화평해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경제하락을 겪으면서 우리의 가정은 나날이 해체되고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나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의지할 곳은 바로 가족의 품, 우리의 가정뿐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회사일로 지친 남편에게, 바깥 살림살이를 이끌어온 아내에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라온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자. 나날이 따사로워지는 햇살만큼이나 우리 가슴 속에도 사랑과 희망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면서 경전속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안팎의 친척 사이에서 서로 경애(敬愛)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 부모를 잘 봉양하고, 처자를 아끼고 보살피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대일심경>  
 ■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집이화경>  
 ■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자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

에서 오는 과보일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남무사불기홍경>  
 ■ 자비스런 부모가 오래 길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남녀가 다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산왕과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어서 대해와 같다. <심지관경>  
 ■ 부모는 다음과 같이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자식을 태일러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가르쳐주며, 사람이 자식의 고통에 사무치도록 해야 한다. 또 좋은 사람에게 결혼시키고 수시로 필요한 것을 대어주어야 한다. <육방예경>  
 ■ 사람은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물질을 금어 함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집이화경>  
 ■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석가 종족은 부처님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 집을 위해서는 한 사람을 버리고, 마을을 위해서는 한 집을 버리며, 나라를 위해서는 한 마을을 버리고, 몸을 위해서는 대지를 버리느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집사>  
 ■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 동서화합 위한 불교역할

### 제언



진관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더이상 갈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이 엄청난 민족의 내상으로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 또 다시 동서의 분열로 민족의 미래와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동서화합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민족의 앞날에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과거 정치사에서 동서의 갈등이 조장되어 누가 이해를 가졌는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 화합된 힘으로, 우리 불자들의

승화된 지역화합의 문화를 건설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래 동서남북이 어디 있었는가. 하지만 민족사의 아픔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방관하고 소극적 역할로 도외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현실의 고통구조를 풀어내자는 수행적 견지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화합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

신 것도 자비와 용서를 통해 불국토를 구현하시는 것이다. 동서화합 불교운동본부가 4월29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지만 기대만큼 많은 스님들이나 사찰이 동참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한다면 불교가 동서화합에 발맞추고 나서가 민족의 화합을 위해 작게는 동서화합을 위해 타지역에 대한 민족사적 이해의 폭을 넓혀 분사별, 사찰별 교류를 확대하고, 타지역과 동서간의 법회를 조직하고 서로의 다른 문화와 이해를 넓혀 갈등이나 분열이 없인 한민족임을 다시 확인하여 서로 소외된 지역에 불자들이 먼저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확대하여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비와 용서를 통해 불국토를 구현하시는 것이다. 동서화합 불교운동본부가 4월29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지만 기대만큼 많은 스님들이나 사찰이 동참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한다면 불교가 동서화합에 발맞추고 나서가 민족의 화합을 위해 작게는 동서화합을 위해 타지역에 대한 민족사적 이해의 폭을 넓혀 분사별, 사찰별 교류를 확대하고, 타지역과 동서간의 법회를 조직하고 서로의 다른 문화와 이해를 넓혀 갈등이나 분열이 없인 한민족임을 다시 확인하여 서로 소외된 지역에 불자들이 먼저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확대하여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 열린마당

## 본사주지 겸직

94년 조계종 개혁추진단이 출범하며 '힘의 분배'라는 차원에서 총무원장과 본사주지 등의 겸직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의 종헌 11조는 '본종의 승려는 상근 직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조계종의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의 중회의원 겸직금지를 그대로 둘 것인가 풀 것인가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금지조항 해제 경륜활용”

성덕 <동화사 주지>



종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제도 개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그물처럼 꼼꼼하게 짜졌을지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고래라도 드나들 수 있는 틈이 보인다. 그 틈새를 비집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 다툼이 생긴다. 조계종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그 때 왔음을 상기하자.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종단 구성원들의 애증하는 마음과 위계질서의 확립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 본사주지 스님들은 법납 25세·세납 45세 이상인 종단의 중진들이다. 이 분들의 중회의원 겸직금지 해제 주장은 위계의 확립, 경륜과 경륜의 나눔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세력의 확장이라는 일도양단식의 풀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교구본사 일반 해도 벽할 때가 있다. 그러나 말사의 관리와 발전적인 종단운영을 위한, 또 교구본사의 현실과 부합하는 중앙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하고 조언하는 항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교구본사주지 중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

### “겸직하면 부작용 더 많아”

청화 <조계종 중회 부의장>



94년 조계종 개혁은 종단 침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수에 의한 종단 운영이 좌우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수의 능력 있고, 종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스님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었다. 교구본사주지들의 중회의원 겸직금지를 규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94년 이후 젊고 의욕있는 스님들이 중앙종회에 다수 참여했으며, 활발한 중회 활동을 보여줬다. 그런데 최근 교구본사주지의 중회의원 겸직금지를 풀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94년 당시의 개혁을 되돌리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 겸직금지로 인해 종단에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미처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가지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더구나 본사주지스님들이 중회에 참여할 경우 객관적 안목을 견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든다면, 분담금 조정의 문제와 관련된 본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 종단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본사주지스님들이 중앙의 중회의원까지 겸직한다면 본사주지와 중회의원 소임 모두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 독자의 소리

## 통도사불자 신도증 못만들어

본인은 70년에 송광사에서 수계하고 불교에 입문하여 불자가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 이후 통도사와 인연이 닿아 나름대로 정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 왔으며 4년전 신도증을 발급받아 불자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정진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회비를 납부하고 신도증을 재발급 하려 했으나 통도사 말사인 한 사찰 담당자로부터 '통도사 소속의 불자'는 신도 확인은 물론 신도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한 지시가 총무원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꼭 발급받으려던 다른 사찰 소속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시비하고 싶지 않아 신도증 재발급을 포기하였다.

스님들간의 힘 겨루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걸더라고 속다른 불교계의 현실과 왜곡된 종단의 포교정책 및 총무원행정을 목격하는 것 같아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조계종 신도증'을 가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다는 불자된 신념으로 개외지 않으려 했으나 우리나라 불교계의 살림살이와 처지가 안타까워 이같이 소견을 밝힌다. 김영철(부산 사하구 당리동)

## 건축법 재개정에 뜻 모아야

현대불교신문에서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관한 기사를 읽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 사찰은 단순히 불교계만의 성지가 아니다. 온 국민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문화유적이며 국민의 귀의처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찰의 일부분 바로 가이음식점 등 유해업소가 들어선다면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은 파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기사가 교계 신문에만 보도되지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사찰을 자세히 적은 홍보전단지라도 전국 각 사찰에 보내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건축법의 재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서명운동은 전국 사찰별로 펼쳤으면 한다. 임경화(서울 송파구 문정동)

조계종 중정 추대법요식 때마다 원로회의 의장과 총무원장이 새로 취임하는 중정에게 불자(拂子)와 주장자(拄杖子)를 증정한다. 그런데 올해는 전래대로 불자와 주장자를 증정할 수 없게 되었다.

총무원의 지난 달 통도사에 공문을 보내 불자와 주장자의 반환을 요구했다. 답변이 없자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통도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도사는 '불자와 주장자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정화회의에 알 아보라'고 답변했다. 정화회의는 지난 1월 월하스님을 중정으로 추대하고, 중정추대 법요식을 별도로 봉행한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취소하기도 했다.

불자와 주장자를 새로 추대된 중정에게 증정하는 의식은 2대 중정인 청담스님(재임 1966. 12~67. 12) 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의 불자와 주장자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불자는 짐승의 털이나 마(麻)·면(綿) 등 부드러운 것을 묶어 발레를 쫓거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었다. 한국이나 중국의 선종에서는 설법할 때에 손에 들고 위의(威儀)를 드러내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설법의 상징으로 쓰였

다. 주장자 또한 나침반과 같은 권위의 상징이다.

총무원의 고민 끝에 '중정을 상징하는 불자가 정화회의측에 가 있어 전 중정 성철스님이 개인적으로 쓰던 불자와 주장자를 이번 중정 추대식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자와 주장자는 어디까지나 상징물일뿐 권위와 법통 그 자체는 아니다. 조계종의 권위와 법통은 종헌에 명시된대로 '석가 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

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하는 중지의 실현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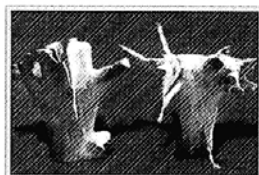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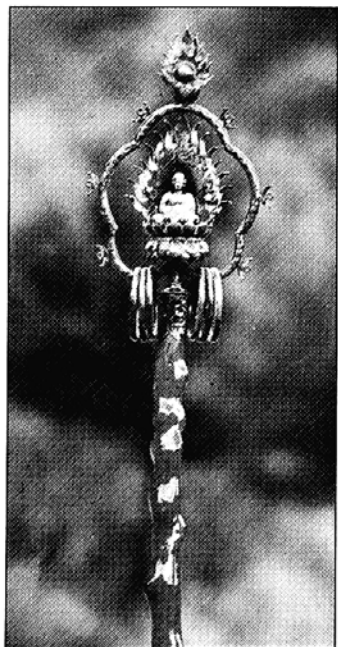
지난 조계종사태가 진정된지 벌써 몇달째이며, 불자들이 국민들은 대부분 현 총무원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대화합의 멋진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계기가 중정추대식과 부처님오신날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전래의 두 상징물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또한번 주어진 화합의 기회이다.

(swju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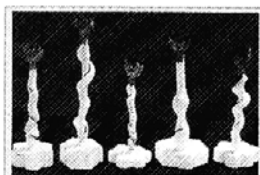
# 육환장 소리 떨그렁 떨그렁 ... 시방세계 꽃이 피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불교전통 수행목공예품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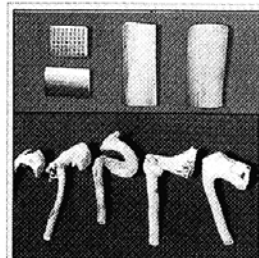
무수수의 세존 그 지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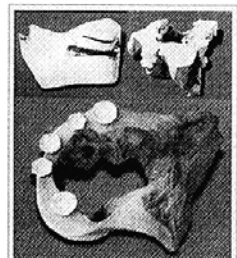
■솔향꽃이: 十長生木인 소나무 송지목(30년 이상된 소나무가 죽어 20년정도의 단풍 송지목이 될)으로 만든 솔향꽃이. 이는 천연향이자 살균제 공기정화제로도 여법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의 묘미와 정경미의 향기가 천년세월 한결같은 것이다.



■연화꽃대: 육각형(연화) 받침대에 용대를 세우고 연꽃으로 장식하여 '연화꽃대'를 만들었는데, 정성스럽게 제작되어, 常樂我淨이 대光明임을 자각하는데 일조하리라 믿는다.



■목칠 종양지: 짐승 편히 자도록 도와주고 목의 어혈을 풀어주는데 목칠이 좋으며 종양지는 자연 그대로에서 오래 쓸 수 있다.



■원목 침상·침장침침: 100년 이상 고목의 나무껍질과 곡섬미를 최대한 살려 만들었다. 소백산 계곡의 자연 고사목을 채취해 다듬었다.



◆모시는 글 불보살의 명호는 나무를 붙여서 부른다. 「귀의한다」는 나무(南無) 뜻지 않게 나무도 불교와 인연이 깊다. 석존은 무우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셨다. 숲에서 안기 교화했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일만에 드셨는데 송가의 원형이 되었다. 이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나무 자체가 상에 강개하고 활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당을 목재로 짓는 등 사찰엔 목공예가 특히 발달했다. 오늘날 송가는 전통이 잘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일부 불사는 수행의 차원을 떠나 상품화 되었고, 수입과 무관심으로 원형을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오탁악세의 지구촌, 세계一花를 위해 한국불교의 맥을 세우고 융통정진할 때이다. 본 작품들은 백두대간 나무만을 엄선하여 자연 그대로 手作業했는데, 20년 절집 생활이 담겼다. 이 작은 시작으로 세계가 영산회상화 되길 기원드립니다.

- 육환자 연구원 비구 학림 합장 -

- 일시: 1999년 5월 2일(일) ~ 11일(화)
- 장소: 용전갤러리 (조계사에서 인곡동 방향 100m 734-3851)
-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육환장 연구원(0584-653-6788)
- 후원: 4·8종축위원회,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 주장자 정법과 깨침의 상징이다. 백두대간 깊은 골짜기에서 채취된 자연목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특수진조해 휘거나 쭈뼛지 않음.